

# 농촌의 정 듬뿍...여름휴가 강진 'MZ 감성 촌캉스' 어때?

강진군, 21일~8월 21일 푸소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2박3일 농가서 숙박하며 농촌 체험...짚트랙 무료 쿠폰도

“올 여름휴가는 강진서 ‘촌(村)캉스’ 어때?” 강진군이 오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MZ 감성 촌캉스’ 푸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휴가철 관광객 모집에 나섰다.

‘MZ 감성 촌캉스’는 기존 농촌체험 프로그램인 ‘푸소(fu-so, feeling-up, stress-off)’와 ‘촌캉스(농촌+휴가)’가 결합한 형태로, 2박 3일간 푸소 농가에서 숙박하며 농촌의 감성과 정을 체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 프로그램이다.

이번 촌캉스의 참가비는 1인당 9만3000원으로 이틀간의 숙박과 3끼 식사가 포함된다. 예약자에게는 짚트랙, 청자 체험 등 유료 체험 2

종 무료 쿠폰을 제공하며, 4명 이상 신청 시 제트보트 무료 탑승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해 MZ 세대의 가성비 여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약자는 인스타그램 핫 플레이스 추천 여행지, 권역별 여행코스, 관광지 등 사전에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여행 중 개인 SNS에 여행 사진을 게시하고 인증하면 푸소 굿즈(goods)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푸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예약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강진군청 문화관광실 푸소팀으로 하면 된다.

**?** 푸소(fu-so)  
 지난 2015년 5월 학생들 위주의 농촌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첫선을 보인 이후 ‘일반인 푸소’,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강진푸소 시티투어’, ‘공무원 청렴 푸소’ 등으로 확장되며 ‘남도답사일번지’ 강진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강진원 강진군은 “강진 촌캉스는 M세대에는 추억을, Z세대에는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여름휴가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연령대의 여행객에게 푸소 체험의 매력을 널리 알려 강진의 새로운 관광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을 찾는 팸투어 여행객들이 영랑감성학교가 끝난 후 시문학파기념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장성군, 삼계면 상무평화공원에서 '썸머 뮤직 페스타'

22~23일 어울림 여름 음악회

밴드 무대...물놀이장도 설치

장성군이 무더운 여름을 잊게 해줄 시원한 공연을 준비했다.

장성군은 오는 22~23일 삼계면 상무평화공원(영장로 1718-1)에서 장성 어울림 여름 음악회 '썸머 뮤직 페스타'를 연다고 밝혔다.

첫날인 22일에는 대한민국 핑크 1세대인 레전드 밴드 '노브레인'이 장성을 찾는다. '넌 내게 반했어', '바다 사나이' 등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없는 흥겨운 레퍼토리를 이어간다.

슈퍼스타케이(K)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실력을 검증받은 '닥펍스'의 무대도 기대를 모은다. 보컬, 베이스, 키보드, 드럼 4인조로 구성된 밴드다. '비바 청춘' 등 대표곡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감성 록밴드 '비아스'의 공연이 뒤를 잇는다.

23일에는 '별이 진다네',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나' 등 감성적인 명곡들로 유명한 '여행 스케치'와 '각테일 사랑'으로 잘 알려진 '마로니에'가 관객과 만난다.

2022년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포크가수상에 빛나는 김희진, 심세한 보컬이 돋보이는 엄지애의 무대도 놓칠 수 없다. '페스타'라는 이름에 걸맞게 놀거리, 먹거리도 풍성하다.

낭만펍(pub)과 간단먹거리부스, 포토존, 이벤트부터 색소폰 동호회 연주, 상무대 군악대 공연까지 다채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상무평화공원 음악분수.

어린이 물놀이장도 설치된다.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본 공연은 저녁 7시에 시작한다.

이 외에도 전남디지털배움터 에듀버스 ▲여름 용품 만들기 체험 ▲수양호 수상레저타운 워터파크 50% 할인 이벤트도 준비된다.

상무평화공원 음악분수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296개의 노즐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수와 바다

에 설치된 134개의 엘이디(LED) 조명이 음악에 맞춰 화려한 불거리를 선사한다. 정오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40분 간격으로 운영한다.

김한중 장성군은 “기나긴 장마와 무더위, 열대야로 지친 일상을 위로해 줄 상무평화공원 '썸머 뮤직 페스타'에서 시원하고 행복한 추억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강진군 자원봉사 대학 '행복 푸드 클래스'

수강생 31명 제철 채소로 건강 요리

강진군이 여성회관에서 자원봉사대학 교육과정으로 '행복 푸드 클래스'를 운영했다.

'박미영요리연구소' 대표인 박미영 강사의 지도로 31명의 자원봉사대학 1기 수강생들은 제철 채소인 가지를 이용해 새우 멘보샤를 직접 만들었다.

대표적 컬러푸드인 가지의 효능 설명까지 곁들여지면서 '건강과 행복'을 주제로 한 푸드 클래스의 의미를 실현하는 과정을 선보였다.

직접 만든 '가지 멘보샤'는 가족뿐 아니라 이웃인 강진양로원에 전달됐다. <사진> 자원봉사대학은 단순 체험에서 벗어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자원봉사대학은 월 2회씩 총 14회 운영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전문화된 교육으로 전문자원



봉사자를 양성해 자원봉사자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나주시, 보훈 수당 월 5만원→7만원 인상

지급 대상 5·18 유족 등 확대

나주시는 이달부터 국가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도 기존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유족에서 무공·보국수훈자, 5·18 유공자 본인과 유족으로 확대한다.

명예 수당 지급대상자 수는 270명에서 600여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신청은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의향 나주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보훈명예수당과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유공자, 가족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함평군 모든 학생에 방학 중 우유 무상 급식

전남 자치단체 최초...2198명 대상

함평군이 전남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여름방학부터 지역 초·중·고교생 2198명 모두에게 방학 중 무상 우유 급식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함평군은 방학 중에 모든 학생에게 무상 우유 급식을 하는 곳은 전남에서는 함평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학교 우유 급식' 대상으로 ▲전체 초등학생 ▲전체 학생 수 240인 이하 중·고등학교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등으로 확대했다.

함평군은 전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580여 명에게도 우유 급식을 하기 위해 자체 예산 6000만원을 투입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방학 중에 우유를 집으

로 배달해주기로 했다. 함평에서는 427명이 포함됐다. 함평군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모든 학생에게 우유를 무료로 전하기로 했다.

함평군은 여름·겨울 방학 무상 우유 급식 지원 예산을 추경에 추가 확보하고, 우유를 배달할 대리점을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함평”이라는 군정 방향에 맞춰 방학 우유 급식 확대를 결정했다”며 “무상 우유 급식 대상자가 전체 학생으로 확대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내 낙농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담양군 국제명상센터 건립 등 현안사업 국비확보 총력전

기재부 방문 정부 예산 반영 요구

담양군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역점 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담양군은 최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담양군 국제명상센터 건립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영주 부군수, 미래성장국장, 기획예산실장 등 주요 현안사업 소관 부서장들이 함께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 기후환경예산과, 국토교통예산과 등 소관 부서를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군은 이번 방문에서 기획재정부가 심의 중인 ▲담양군 국제명상센터 건립사업 ▲영산강 담양지구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담양군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사업 ▲위임국도 29호선 용면 월계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국도 24호선 천변 지구 교차로 개선사업 등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



최영주 부군수 등 담양군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담양군 국제명상센터 건립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담양군 제공>

청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우리 군 현안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민선 8기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열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 화순 소상공인연합회 출범...김경수 회장 선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서 발대식

화순지역 소상공인들이 모인 '화순군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했다.

화순군은 최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화순군 소상공인연합회 발대식과 신임 회장 취임식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북구 화순군수와 박정선 전라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 화순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화순군 소상공인연합회는 초대 회장으로 김경수 회장을 선출하고 임명장과 깃발을 전했다. 이후 지역 임원 임명서 수여, 임원 선서 등이

이여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4년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이다.

소상공인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구북구 군수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활동해 주길 바란다”라며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